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19’

“장애·연령·성별·언어 넘어 누구나 편리한 환경 돼야”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구축’ 공약 발표

- 장애인과 유아차,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제약과 불편 없는 ‘유니버설디자인’ 필요
- 인증제 및 법제화 공약하며 ‘공공부터 민간 확대’, ‘기업의 참여 유도’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1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구축’을 발표했다. 장애 여부는 물론 연령, 성별, 언어 등으로 인한 불편에서 벗어나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를 뜻하는 개념으로, 도시·교통·환경 등 공간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디자인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식당을 고를 때 메뉴, 가격, 분위기가 아닌 식당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경우’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장애인뿐 아니라 유아차를 동반한 성인, 키가 작고 시선이 낮은 어린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장애·연령·성별·언어 등으로 인한 불편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만들고 바꾸는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양한 사용자를 아우르는 디자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보다 더욱 보편적인 개념이다. 가령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지하철 계단의 리프트가 ‘배리어 프리’ 라면 간격 넓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는 ‘유니버설디자인’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원·도서관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면서도 “다만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효과가 높지 않다” 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도입해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것을 공약했고, 특히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이 교통·건축·도시·제품·환경 등 여러 분야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유기적 연결이 중요한 만큼,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 후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 유니버설디자인기본법안 주요내용 (최혜영의원실 대표발의 준비중)

[목적]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행정상 조치를 강구함.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1. 이동과 관련된 분야
2. 공간 및 시설의 접근·이용과 관련된 분야
3. 제품과 공공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분야
4. 재해·재난·사고 등의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분야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